

제 목 : [옴김] 여성공간에 대한 강간에 분노하며

여성공간에 대한 침탈,유린,폭력,강간에 분노하며.....

-96년 5월 29일 이대 대동제에서 자행된 민족고대의 쟁판(?)에 대하여
이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마다 자행되는 '민족고대'의 쟁판(?)에 대해 그것이 단순한 놀이나
'해방'이 아닌 명백히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정치적 사건임을 밝히기 위한 것
이고 둘째 사건 당일 난동에 참여했던 고대의 무식하기 짝이 없는 남녀학우들
에게 그들이 한 행동이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일어난 것인가를 자각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규탄하기 위함이며 셋째 이러한 난동을 당했던 당사자 이
대(중학생회를 포함한 개별학우들)의 사건대응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
기 위함이다.

96년 5월 29일 낮 12시쯤 이대 박물관 앞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
었다. '쟁판'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던 고대의 난동에 대해 처음으로 토론의 장
을 만들고 공론화하면서 명백히 그들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드디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고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인지 대부분의 이화인들은 그간의 경험과 울분
을 토로하기에 급급했다. 패널로 나왔던 한 이대 졸업생이 중요한 것은 '용어
규정'임을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라는 용어에 피해자인 이화인
들은 낮9설어 했고 가해자를 관대하게 보려는 (착한 '고대인' 운운하며) 의견
까지 제시되었다. 물론 이화인들의 신랄한 비판과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음
은 분명하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했던 이화인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용
어규정'의 정치적 의미와 '공간'에 대한 세인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용어규정
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어떠한 것을 A로 정의, 규정한다는 것은 세
계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규정은 항상
용어규정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분석인 동시에 정치적
실천까지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고대의 난동을 쟁판이라 규정했을 때, 그것은 고대의 일부
몰지각한 남학생들이 술먹고 개기는 '해프닝'이며 '놀이' 혹은 '게임'이 된다.
물론 대다수의 민족고대생들은 그들의 행위가 일종의 게임이자 놀이라고 생각
한다. (그것도 고대 선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간문화제 0호 지정 전통놀이로
서). 그러므로 고대의 쟁판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행사 진행
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남성들의 책기(?)로서 수용가능한 문제가
되버리고 평등한 개인간의 놀이문화로 귀결되버린다. 그러므로 이화인은 고대
난동의 명백한 피해자가 아니라 좀 불편하고 불안한 '구경꾼'이 된다. 결국 피
해자인 이대는 가해자인 고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격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가해자와 지배세력이 의도하는 정당화의 각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대
난동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을 때, 여기에는 불평등, 남성지배, 위협, 강제 등
권력관계가 환기되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억압과 피억압이라는 전선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대 대동제에서의 고대 쟁판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안에
편입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집단의 폭력문제와 연루하게 된다. 그리고 '쟁판'

규정 때와는 달리 이에 도전하려는 저항적 주체로서의 '이화인'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맑시즘과 사회주의혁명운동이 없었다면 노동자와 자본가는 이익의 공동주체로서 서로 협력하는 한 식구였을 것이다. 흑인인권 운동이 없었다면 인종탄압은 정치적 이슈로서 가시화되지 않고 공기와도 같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환경'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저항적 주체로서 '이화인'이 형성되지 않는 한, 저항적 주체의 눈으로 전선을 인식하고 권력관계를 간파하지 않는 한, 고대 난동은 대학가 '축제'의 놀이문화로 한정될 것이다.

혁명이든 혹은 저항적 주체 없이 지배계급과 억압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혁명가의 도전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권력의 작용, 지배, 억압의 본모습은 드러나게 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배세력은 진실을 은폐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성폭력규정은 비약이고 매도라고 필멸 되는 이유이고 이화인은 소리높여 성폭력임을 주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경험의 당파성은 이처럼 다른 해석과 실천을 낳는다. 그러므로 '성폭력'이라는 용어규정은 상황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혁명과 전선에서의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대난동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을 때, 우리는 '깡판'에서 처럼 더이상 그저 지켜만보고 연중행사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과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문제를 보자.

'공간'은 계급에 의해 구획화된 억압의 장소인 동시에(예) 빈민촌, 슬럼, 감옥) '해방'과 '저항'의 거점(예) 저항적 하위문화와 근거지, 각종 투쟁에서의 공간의 사수)이기도 하다. 인간은 공간을 통해서 반동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기도 하고 저항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대'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이대 캠퍼스'를 넘어서 '이화인'이라는 정체성, 여성들만이 여성들끼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여성만의 공간을 내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중심적 공간/상징체계에서 '여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고대난동을 단순히 사고하는 데는 이대를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대 캠퍼스'에 한정시키거나 이화대동제를 '쌍쌍 축제'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화 대동제는 이화인, 여성들끼리 대동하는 행사이지 외부 남성(남자친구 등등)과 대동하는 행사가 아니다. 외부인이 초대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방문객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대동제의 주체는 이화인과 그의 이성 파트너가 아니라 철저히 이화인 자신들끼리여야 한다.

나는 이 글의 제목에서 이대가 아니라 '여성공간'이라 명명했다. 그러므로 고대의 난동이전에 여성공간인 이대는 착한(?) 혹은 사랑스러운(?) 이화의 이성 파트너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침해당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깡판은 고대난동꾼들뿐만 아니라 이화인이 팔짱끼고 데리고 온 대다수의 남성들에 의해서도 자행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이대의 방문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소리치르고 활보하며 고성방가를 일삼거나 이화인의 보호자인양 자처하며 철저히 이화인을 대동제의 구경꾼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즉, 오늘은 연애장소가 카페나 영화관이 아니라 이대 캠퍼스일 뿐이다. 대동제기간의 이대 교정은 여러 가지 행사에 여성들끼리 참여하고 의의를 다지는 것이 아

나라 연애 커플이 그것을 구경하고 즐기느라 일대 혼잡과 무질서가 야기된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착한(?) 이화의 이성파트너이고 누가 못된(?) 고대 난동꾼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 민족고대'의 합성과 엘리제가 들려오기전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구별해낼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할 때 우리는 착하고 매너있게 행동하는 외부인 남성은 괜찮고,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고대의 난동에만 반대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물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는 고대생들과 암전한 다른 외부인은 직접적인 피해여부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화인들이 이화의 대동제를, 이화의 공간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위 깡판과 휘방은 물리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것만을 지칭해서는 안된다. 고대인들이 이대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방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공간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그들끼리 대열을 만들어 공간을 점유하는 것, 자기네들끼리 놀이를 즐기거나 언제든지 난동을 부릴 수 있다는 심리적 위협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고대가 아닌 타학교 남학생들이 이화 대동제의 참된 의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쌍쌍파트너와 행동하는 것 모두 여성공간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보아야 한다.

일단 침해된 여성공간내에서는 여성들끼리의 연대와 참여 또한 침해당한다.

학생회 차원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참가한 이화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화인들은 스탠드에 앉아서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이화의 행사를 구경한다. 그리고 이화광장에서는 고대의 개떼들이 몰려와 구석 구석에서 킁킁거리며 난동을 준비한다. 아 때 본격적인 고대의 난동이 시작된다면 스탠드에 앉아 있던 이화인들은 남자친구와의 팔짱을 풀고 고대개떼들을 향해 이화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짤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이화인'과 이대라는 여성공간에 동일시되어 있지 않다. 옆에 앉은 남자친구에게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여성공간'에 대한 사수는 의식되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반응은 자리를 떠서 난동을 회피하거나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갖거나 가끔 운동장으로 강통이나 휴지조각을 던지는 것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공간에 대한 침해는 단순히 '물리적 침범'을 넘어서 여성간의 연대를 침해하는 물적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분리적인 공간이 사수되지 않는 한, 공동의 이해를 갖는 저항적 정체성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96년 5월 29일 오후 6시쯤, 이대 대운동장에서는 영산줄다리기를 위한 풍물패의 축하행사가 한창이었다. 이 때 나를 포함한 이대 졸업생 45명은 이화광장을 지나 교문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토론회까지 있었으니, 이번만큼은 고대도 그리고 이대 당사자들의 대응도 뭔가 달라지리라는 기대감을 품은 채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은 불과 3~4초 내에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화광장앞에 100여 명 이화인의 큰 원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속에 민족고대 십여명이 엘리제와 고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일행이었던

졸업생 한 명이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들을 해산,진압시키기로 했다.먼저 에워싸고 있는 이화인을 헤치고 원안으로 들어가서 적들의 원을 헤치고 들어갔다.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아직 젖냄새가 폴폴나는 자식들이 고대,고대를 외치고 있었다.이제 막 남성성을 학습해보려다가 큰 누나들에게 혼나고 창피당한 쪼무래기들의 비참한 참패였던 것이다.당연히 그들은 순간 해산했고 진압(?)당했다.그러자 원을 둘러싸고 있는 100여 명의 이화인들이 환호를 하며 우리에게 박수를 쳤다.정말 기가 막혔다.숫적으로 보아도 이화인이 훨씬 우세하고 고대 아이들 역시 이제 막 흉내내보려는 피레미에 불과했다.그런데 왜 이화인들은 휴지조각만을 안으로 던지면서 그들의 무대를 마련해주고 남성성의 시위를 보장, 자극해주고 있는가? 처음 시도하는 피레미들은 약간 겁도 나고 떨렸을 것이다.그러나 그들의 줄은 가슴과 마마보이 기질에 용기백배 남성성을 심어준 것은 그들을 바라봐 주고 있는 여성관객이 있다는 자부심이다.그럴 때 그놈들은 아버지가 갖은 남근의 힘과 남성성이 불끈 불끈 솟아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타자화하는 대상이 존재해야만, 그들을 약자화하면서 남성성은 제대로 군림할 수 있다.

분노한 나는 이화인에게 소리 질렀다.박수치고 구경하지.말고 같이 나와 싸우자고.그러자 지원자가 나왔다.100여명 중에 단 2명이.....사태는 그렇게 종결되었다.고대가 해산하자 우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던 이화인의 대열 또한 곧 흩어지고 이화광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조용해졌다.그리고 마지막까지 깨졌던 빨간모자,회색티셔츠,반바지를 입었던 놈은 분명 다시 형님들의 힘을 얻고 모욕당한 놈의 남성성을 회복하려고 재시도할 것임에 틀림없었다.(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놈은 영산줄다리기에서 자행된 집단 폭력난동에 미친듯이 날뛰고 있음이 멀리서나마 발견됐다.)

96년 5월 29일 오후 8시 쯤 이대 대운동장을 그야말로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였다.운동장을 꼭 때운 이화인들이 영산줄다리를 시작하기전,사기를 진작시키고 대동하기위한 큰 춤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무대 앞 율동이들을 따라 흥겨운 민가에 맞추어 모든 이화인들이 일제히 신나게 몸을 움직였고 간혹 어깨동무를 하고는 환호성과 합성을 지르기도 했다.휘날리는 각 단대와 과의 깃발들,무대의 힘찬 목소리,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여성공간에 대한 희열과 해방감이 넘실대는 순간이었다.여성들만의 힘으로,여성들끼리,여성들만의 열정을 나누는 광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환희에 찬 여성공간은 곧 무참히 유린되어졌다.

운동장 오른 쪽 입구로 고대의 개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민족고대'의 호병과 함께 스탠드와 이대 교정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개떼들이 삼삼 오오,혹은 수십명씩 몰려나오기 시작했다.그들은 점점 더 대열과 원을 확장하면서 고대를 외쳐댔고 그 대열은 이화의 대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총학생회측은 '우리가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보여주시다'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음악을 틀고 율동을 진행시켰고 뒤늦게 이화지킴이 십여명이 달려나와 고대 대열 앞에서 지킴이들끼리 손을 맞잡고 막아섰다.스탠드에서 바라본 이러한 광경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고 순간하는 사이에 수십,수백의 사상자를 낼지도 모르는 폭력난동이었다.뽕연 모래바람으로 꽂차서 앞을 분간하기도 힘들어 질때쯤,갑자기 '와'하는 함성과 함께 고대 개떼들은 미친듯이 이대 대열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이 때, 대학가의 축제에서, 수천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남성에 의해 집단강간당하는 여성을 보았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고 분노로 온 몸이 떨렸다. 그러나 강간당한 여성들은 '우리는 고대의 지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대 지성 여러분! 저희 대동제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화 대동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화인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방송으로 강간범의 진정과 자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방송이 나가는 동안 대열에서는 엄청난 몸싸움과 폭력이 자행되었고, 철심을 박아 치료중인 팔을 고대에게 밟힌 이대 차명진 학우의 부상도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의 친절한 안내방송이 아니었다면 개떼들은 더욱 흥분해서 날뛰었을 것이고 부상자는 몇십, 몇백에 이르렀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사태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광경은 성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비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스탠드를 해치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이게 웬일인가? 호랑이가 그려진 고대 색을 댄 고대 여학생들이 고대 대열에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고대 개떼들과 어깨를 걸고 고대, 고대를 외치는 여학우들을 보는 순간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심지어 고대 개떼들을 앞에 세워놓고 양갈진 고음의 목소리로 '민족고대!' 하며 동을 뜨는 여학생까지 있었다. 나는 지체없이 그원으로 뛰어 들어가 그 여학생을 붙잡아 세웠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바라본다. 너무나 흥분한 나는 우선 정중히 정신병자가 아닌지라고 물었다. 체 정신인가? 여자문화 위협하고 깽판치겠다고 온 남자에들과 같이 어울려, 여자인 니가 여자를 강간할 수 있는가? 놀란 그녀는 나의 괴물스런 모습에 참안 놀라 당황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친구가 이대인데, 지들도 고대가 이러는 거 즐긴데요.'

'뭐 즐겨? 너는 니가 강간당하면 즐기니?' 나의 반각이 있자, 고대 개떼 중 한 마리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나를 말했다. '왜 이러세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간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며, 그녀들을 빈약한 그놈의 몸뚱이로 숨겨 주었다. 금방 이대인들에게 폭력을 자행했던 '개'가 얼른 고대 여성에게는 신사적인 기사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가증스런 신사가 얼마든지 고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자행하는 미친 개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고대 여성들은 아마 그들이 영원한 친구이자, 보호자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가 보다. 그러나 성폭행은 부부, 애인, 지인, 친구관계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 고대 여성들은 물리적, 상징적 남근의 폭력성을 아직 실감해 보지 않았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적인 계율을 몸소 실천하는 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의 소유자인 것 같다. 나는 근 한시간을 모래바람속에서 고대 대열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나 반응은 모두 비슷했다. 여학생들은 할말을 잃고 나를 피했고, 개떼들은 그녀들을 보호해주고 변명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여자를 공격하니깐, 그들은 다들 미친 개에서 신사로 돌아와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이다.

왜?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는 것도 '남성성'이지만 여성을 보호해야하는 것도 그들의 '남성성'이기 때문에.....

결국 한시간 반여에 걸친 일대 난동은 개떼들에게 이화광장을 보장해줌으로써 일단락되었고 이화인은 운동장에서 행사를 진행시키게 되었다.그렇다. 그들은 운동장에서의 직접적인 난동을 철회하였지만, 이화광장을 점유함으로써 여전히 여성공간안에 군림하는 것이다.

그들은 왜 해마다 이대에 오고 왜 소위 깡판을 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고대 난동의 중요한 축은 '남성성을 기초로 하는 전통'에 기반한 '민족고대'의 정체성 획득에 있다.난동에 참여하는 고대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전통임을 강조한다.그렇다면 '민족고대'의 그 찬란한 전통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떠한 집단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중중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타자화함으로써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방법을 사용한다.그러므로 '고대'는 '非고대'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남성성' 역시 '여성성'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민족고대가 남성성을 육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에 대한 군림과 여성문화에 대한 공격과 유린이 필수적이다.파괴와 폭력이 가져다주는 늪음한 남성성의 확인없이 '민족고대'의 정체성의 기반은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즉, '민족고대'를 위해서는 '이대'의 존재가 필요하며 '이대'에 대한 처벌,검열,통제,공격은 그들의 정체성 획득의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자,이쯤되면 무언가 어디서 많이 들던 이야기임을 감지할 것이다.고대의 깡판은 이화 대동제의 해방을 넘어서는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전통적인 남성 지배가 요구한 전통속에 구축해왔던 여성에 대한 통제와 폭력을 상기시키는 역사적인 대목이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남성은 원하고,원하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고,고로 존재한다'고 데카르트를 패로디하여 남성의 권력을 설명한다.고대가 이대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남자이고 이대가 여자이기 때문이다.이것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나 결정론으로 단순하게 매도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매타포로 유의미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남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물리적 상징적 남근을 통해서 권력을 부여받는다.그리고 드워킨의 지적대로 그들의 자기 (self)는 점점 확장되는 동시에 여성의 그것은 점점 더 축소되어 진다.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남성이 여성의 자기(self)를 전유,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자기를 확대하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덧붙인다.

'민족고대'의 남성성과 권력은 철저히 여성성의 권력을 흡수,전유함으로써, 이대를 무력화하고 무권력의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배양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카스트와 계급,위계가 존재해서 절대적인 남성과 여성의 권력불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그러나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인 남녀가 갖고 있는 권력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남성과 여성의 존재에(성별에 의해) 부여하는 권력의 불평등인 것이다.그러므로 실제 남성이 부여받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가 아닌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행사하지 않았지만,체계로부

더 이미 잠재적인 권력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착한 고대인과 못된 고대인 혹은 매너있는 타학교 남학생, 혹은 그들은 일부 물지각한 소수, 대다수의 고대는 그렇지 않다 등등의 이야기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못된 남자보다는 대다수의 착한 남성이 있음을 애써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못된 소수에 의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다수의 착한 남성속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족고대는 남성이기에 여성공간에서 용감할 수 있다. 왜? 신체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대에 들어서면서 '혹시 오늘 이대생에게 얻어 맞거나 성폭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았던 고대인이 있었을까? 즉, '민족고대'는 여성을 통제할 수 있고 구타, 폭행, 완력을 동원해서 여성을 완전 무력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기에서도 고대인이 직접 여성을 폭행했는가, 아닌가만을 따지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그 폭력적인 가정에 화살을 던져야 한다.

수잔브라운 밀러는 강간을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상태에 몰아두는 의도적인 위협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남성의 신체가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불의 사용과 돌도끼의 발견'만큼이나 선사시대 이래로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에게 대들었던 한 고대인은 강간의 비유는 너무 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부분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의미는 '성행위'와 직결되어 있어서 성행위와 권력현상(폭력)을 좀처럼 구분하지 못한다. 즉,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성폭력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 존재로서의 규정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것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항상 성적인 행위로만 이해하는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 외는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를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는 행사되지 않는 간에 우리를 공포와 위협상태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 대열이 서있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고대의 난동은 '집단강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파괴하고 공격할 자궁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남근은 발기하여 공격의 무기가 되지 못한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고대 패거리들에게 이대 대열(여성문화, 여성간의 유대)은 그들의 남근을 찢러놓을 자궁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더욱 끔찍한 것은 한 집단의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전제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며 특히 그것이 '놀이'라는 의례로써 (Ritual)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즉 한집단의 성인식 혹은 민족고대로써의, 남성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례가 '놀이'의 형태를 가장한 타집단에 대한 폭력으로 달성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이쪽은 머리 채를 잡혀 끌려 다니고 팔이 부러지며 얻어 맞지만 그 쪽에서는 이것은 단지 '놀이'이고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 의식 (Ritual)일 뿐이라고 말할 때 정말이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민족고대의 정체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에 기반한 '남성성'의 확립으로

획득되어 진다.'민족고대'의 전통은 명백히 여성문화에 대한 침탈,유린,폭력, 강간에 의해 구축되어지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유구한 남성지배의 역사가 구축해왔던 폭력적 전통의 순수한 혈통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아들의 충정의 발로이다. 그것은 다시 고대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되어지고 정당화되어지며 끊임없이 재생산,자행되어지는 것이다.처음에는 민족고대의 정체성 때문에 난동을 부렸다면 이제는 이대에 대한 침탈이 그들의 전통이기때문에 자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건 당일 혹은 사건이후 이대안에서 비판적 여론은 드높았다.그러나 사건 다음날 자보화된 많은 내용들은 감정적인 흥분에 그치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비판하고 분석한 자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더구나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자보화되지 않았고 심지어 여성위원회 측 자보마저 발견할 수 없었다.교지와 사건 속보,개인이 자보화한 것,그리고 PC에 오른 영문과 학생의 의견이 내가 본 사건대응(자보를 통해)의 전부였던 것이다.

고대인에게 개새끼 혹은 못됐다는 욕설을 퍼붓는 수준의 감정적 흥분이 과연 어떠한 변혁을 가져오는가? 물론 분노는 투쟁의 가장 원초적인 원동력이다.그러나 왜 분노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규명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실천이 없다면 그 분노는 한번의 흥분으로 증발되어 버리고 만다.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제기가 있다.이대 총학생회에 왜 여성위원회가 필요한가? 총학생회자체가 여성위원회여야 하지 않는가? 고대의 성폭력 간담회의 사회를 보았던 총학생회 한 집행부원은 '저는 여성주의에 대해 잘 모릅니다'라고 변명했다. 그것은 마치 흑인이 인종차별주의를 모르고 식민지하에 있는 민중이 제국주의에 대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더더욱 자량은 아니다.

이대는 남녀공학이 아니다.그러므로 총학생회가 필요하듯 여성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한번 의심 되어야 한다.이대총학생회는 민중민주운동과 학생운동의 구심인 동시에 대학내 여성운동의 선봉이어야 한다.사회는 다양한 모순으로 중첩되 있다. 성,계급,성적 선호에 이르기까지.그러나 계급이 이 모든 모순을 증속시키는 상위로써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이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경향에 비판적인 문제제기로써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극지적으로 좀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지 다른 전선을 무화시키고 묵인하는 방식으로 한 전선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우리는 공권력과 국가,자본가에 대해서만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근중심주의, 성차별주의(sexism), 이성애주의(heterosexism), 나아가 진보세력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에도 대항해야 한다. 젠더(gender)를 투쟁의 거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계급의 관점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전선에서 또다른 적과 투쟁해야 하는 우리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과 성적 선호의 문제를 희석화시키는 혹은 묵인하는 학생운동과 민중민주운동은 이화내에서 가장 먼저 지양되어야 한다. 노학연대 집회,한총련 사전결의대회 등의 집회는 조직되면서 왜 고대인의 성폭력에 항의 하고 규탄하는 총학생회의 공식집회는 조직되지 않는가?

오월의 열사들은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왜 남성폭력의 피해자와 여성운동가들은 추모되고 기억되지 않는가?

하루 빨리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표명과 조직적인 실천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대 총학생회가 이땅에 억압받는 4천만 민중뿐만 아니라 매맞고 강간당하며 성희롱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몸을 팔아 생존하는 여성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란다. 분과로서의 여성위원회가 아니라 총학생회의 정치적 기조로서 말이다.

이대 94년 졸.

김 지혜

* 글을 쓰고 난 후 뒤늦게 학내 집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늦게나마 학내 집회가 있었음이 다행스럽지만 이대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과 동시에 항의방문 형식으로 고대정문이나 고대내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